

발행인: 홍민표

편집인: 남윤주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19년 9월 23일

<http://www.ksli.or.kr>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중장비실험동 407호 남윤주 교수 연구실 내

전화: (02) 2049-6066

e-mail: ksligeneral@gmail.com

## **1. 회장님 인사말씀**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들께,

어느덧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제법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이 새로 시작된 가을학기의 진행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덕내, 학내 모두 무고하셨는지요.

우선, 이번 저희 학회 소식지가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월례회 모임 최소 2주 전에 소식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가을학기 저희 학회는 지난 봄학기처럼 모두 세 차례의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월례회 모임과 한 차례의 학기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이 소식지의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12월 초에 개최될 예정인 학술대회는 지난 봄학기에 타학회들과 공동으로 진행했던 방식이 아니라, 저희 학회 단독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신 연구논문들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 저희 학회의 동료학자들과 교류하시면서 의견들을 교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빌며, 9월 28일 토요일 아침에 대우재단 빌딩 세미나 1실에서 뵙고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한국언어정보학회장 홍민표 올림

## 2. 2019년 2학기 주요 일정

- ▶ 3차 월례발표회: 9월 28일 (토) 09:30-12:30, 대우학술재단 세미나 1실
- ▶ 4차 월례발표회: 10월 26일 (토) 09:30-12:30, 대우학술재단 세미나 1실
- ▶ 정기학술대회: 12월 7일 (토), 장소 추후 공지

## 3. 3차 월례 발표회 (9월)

- ▶ 9월 월례 발표회는 9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학술협의회 (대우학술재단) 7층 세미나 1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월례회는 아래와 같이 세 분의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초록은 본 Newsletter의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이현우(인하대학교): 수능 영어 시험과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분석: 읽기 문항을 중심으로
  - 이주원(전주대학교): Non-culmination of Korean Activity Verbs
  - 임동식(홍익대학교, joint work with Semoon Hoe, Yugyeong Park, and Chungmin Lee): Korean evidential -te and the speaker's commitment: focusing on variable evidentiality

## 4. 4차 월례 발표회 (10월)

- ▶ 10월 월례 발표회는 10월 26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학술협의회 (대우학술재단) 7층 세미나 1실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교수님께서 발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한 분 정도의 발표가 더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되오니, 추가로 발표를 원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ksligeneral@gmail.com](mailto:ksligeneral@gmail.com)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민(서울대학교): Factive Presupposition n by Nominal Complement Clause Type
  - 채희락(한국외국어대학교): 저서 “Korean Morphosyntax: Focusing on Clitics and Their Roles in Syntax” 중 일부 내용 소개

## 5. 유관 학회 참석 안내

- ▶ 2019년 11월 2일(토)에 부산대학교에서 한국코퍼스언어학회 정기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논문 초록 제출 마감일은 9월 28일(토)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시: 2019 년 11 월 2 일(토)
- ▶ 장소: 부산대학교
- ▶ 주요 일정
  - 초록 제출 마감: 2019 년 9 월 28 일(토)
  - 논문 발표 수락 통보: 2019 년 10 월 12 일(토)
  - 프로그램 확정 및 안내: 2019 년 10 월 19 일(토)
  - 발표원고 및 유인물제출: 2019 년 10 월 25 일(금)
- ▶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 위원장: 김태호(부산대)
  - 위원: 송상헌(고려대), 김정수(경희대)

## **6. “언어와 정보” 23권 2호**

- ▶ 최근 호에 출간된 논문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논문은 우리 학회 홈페이지 (<http://www.ksli.or.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Coordination of Mood Phrases in Korean (Jae-il Yeom)
  - Doc2Vec 단어 임베딩 언어 모델을 활용한 텍스트 장르 구분 (김동성)
  - Wh-the hells in Sluicing and Swiping (Jeong-seok Kim)
  - Assessing the Multi-level Knowledge Prominence Perceived by the Authors as Revealed on their Writings (Wonsuk Yang, Jin-woo Chung, Jong C. Park)

## **7. “언어와 정보” 23권 3호 논문 모집**

- ▶ 마감일: 2019년 9월 30일 (월)
- ▶ 출판일: 2019년 11월 30일 (수)
- ▶ 논문을 투고하고자 하시는 회원분께서는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홈페이지 (<http://ksli.jams.or.kr>)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40,000원 (2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2인 심사, 30쪽 분량 기준):
    - 1) 연구비 수혜 논문: 30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40,000원)
    -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20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40,000원)
  - 참고
    - 1) 논문 출판 시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지 않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 ▶ 현재까지 출판된 “언어와 정보” 논문들은 아래 우리 학회 홈페이지 공간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인용을 당부드립니다.

<http://www.ksli.or.kr/board.php?board=journal&command=body&no=1>

## 8.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를 위한 계좌정보 및 각 연회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협 302-1342-1990-31 윤홍옥 재무이사(한국언어정보학회)
-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ksligeneral@gmail.com로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9. 2019학년도 1학기 1차 월례 발표회 일정표 및 초록

날짜	시간	발표자	발표제목	사회
9/28 (토)	09:30 10:30	이현우 (인하대학교)	수능 영어 시험과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분석: 읽기 문항을 중심으로	남윤주 (건국대)
	Break (20분)			
	10:50 11:30	이주원 (전주대학교)	Non-culmination of Korean Activity Verbs	
	Break (20분)			
	11:50 12:30	임동식 (홍익대학교)	Korean evidential -te and the speaker's commitment: focusing on variable evidentiality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26) 7층
-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서울역 방향 50미터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8번 출구 퇴계로 방향 50미터



## ABSTRACTS

수능 영어 시험과 EBS 수능 연계 교재에 사용된 어휘에 대한 분석:  
읽기 문항을 중심으로

이현우

(인하대학교)

본 논문은 2018 학년도 및 2019 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과 수능 영어 EBS 대표 연계 교재인 2019 학년도 수특강 영어의 세 테스트 지문을 어휘 정교성과 밀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밝히고 이들 지문의 어휘 다양성을 비교하고자

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등급화된 단어 토큰의 분포(어휘 정교성)에 있어서 이들 지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내용어 토큰의 비율(어휘 밀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 2019 학년도 수능 영어 읽기 지문이 나머지 네 지문에 비해 어휘 정교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수능 영어 시험에서의 고급 단어(2K 수준 이상의 단어)의 사용 비율이 EBS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 영어*보다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 수능 영어 시험에서의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고급 어휘의 사용이 EBS 연계 교재의 부실한 어휘 통제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수능특강 영어*에 국한한 것이지만 본 연구는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9 학년도 수능특강* 전체와 과거 십 년간의 수능 영어 시험에서 사용된 어휘의 비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수능 영어 시험이 EBS 연계 교재를 비롯한 학습서보다 2K 수준 이내의 기본 어휘의 사용 비율을 더 높일 때 더 바람직한 학습과 평가의 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Non-culmination of Korean Activity Verbs

Juwon Lee

(Jeonju University)

Korean activity verbs have been assumed to have the simple event structure [x ACT<MANNER>] like their English counterparts. However,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some activity verbs (e.g. ttwi- ‘jump’, ket- ‘walk’, tol- ‘spin’ and kwulu- ‘roll’) in Korean actually have a kind of causative event structure [[x ACT] CAUSE [BECOME [x ACT<MANNER>]]]. Several pieces of evidence for this recategorization are presented: (i) the activity verbs allow zero result readings, (ii) the causing subevent of the verbs are detected by interval modifiers (in- and for-adverbials), (iii) causing and caused subevents of the verbs can be modified by a manner adverb. A potential counterevidence against the claim is also discussed: the activity verbs modified with tasi ‘again’ have only repetitive readings, a fact not expected if they have a causative event structure. However, it is shown that the peculiarity is well explained by a property of the manner root in the causative event structure of the activity verbs.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causative predicates in Korean should be classified (at least) into two types, caused change-of-state predicates and caused motion predicates headed by such an activity verb. Supporting this, it is shown that Korean has derived caused motion predicates. Finally, some implications of this analysis on lexical semantic hypotheses are discussed; they can go against the manner/result complementarity (Rappaport Hovav and Levin 2010, 2013) and the bifurcation of event template and root (Arad 2005; Embick 2009).

# **Korean evidential -te and the speaker's commitment: focusing on variable evidentiality**

**Dongsik Lim**

(Hongik University: joint work with Semoon Hoe, Yugyeong Park, and Chungmin Lee)

Previous studies of Korean evidential -te (Chung 2007, Lee J. 2013, a.o.) have argued that Korean -te exhibits variable evidentiality: the evidentiality introduced by Korean evidential -te may be direct or indirect, depending on absence or presence of tense morphemes. Other languages, such as Bulgarian, are also known to show variable evidentiality. Some authors try to analyze this in terms of the notion of relative tense (Lee J. 2013 for Korean, Smirnova 2013 for Bulgarian, a.o.), according to which tense morphemes under the scope of evidentials are interpreted not relative to the utterance time, but relative to the event acquisition time. In this work we present some data which suggests that tense morphemes under -te should be interpreted with respect to the utterance time, unlike what is argued by the relative tense theory. Furthermore, to explain variable evidentiality of -te and its relation to tense more correctly, we propose that the interpretation of -te is closely interrelated with the speaker's commitment (Gunlogson 2008, a.o.) to the prejacent, as well as its relation to the Question under Discussion (Roberts 1998, 2012, a.o.). While doing so, we will also try to discuss various issues regarding -te, includ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prejacent and the evidence (Hara 2017, a.o.) and the situational understanding of causal relation (Copley and Harley 2015, a.o.).